

주거 환경 공간에서 상징성의 영향 및 역할에 관한 연구

Study On Effect and Role Of Symbol In Environment Design

설인숙

영남대학교 환경디자인전공

• Key words: Symbol, Landmark

Seol, Insook

Major of Environment Design, YNU

1. 서론

우리가 미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개인의 '감성'이다. 그러나 이 감성은 형이상학적이며 그 자체로서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인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감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체가 필요하며 이 인식을 가시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매체가 상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형물을 인간과 공간의 communication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여 그 과정을 성립시킬 수 있는 수단인 상징성의 영향과 역할을 분석 파악하여 미래의 디자인에 적용시킴으로서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해의 혼선을 막고 연구의 흐름을 일정하게 하기위해 본 연구에서는 환경조각을 포함한 벤치 등 모든 외부 환경 시설물을 환경조형물로 통칭하기로 한다.

2. 환경조형물의 목적

예술품이 미술관을 떠나 공공 공간, 대중 속으로 나오면서 예술은 절대적인 가치인 동시에 주관적 체험으로서 다루어지는 미가 아니라 객관적이며 사회적인 경험현상을 다루는 미로 바뀌어진다. 따라서 예술은 작가가 만들어 놓은 상징체계를 통한 거대한 communication의 도구가 되어졌으며 건축가, 조경가, 비 전문분야의 디자이너들이 영역 없이 드나들면서 그 범위 또한 광범위하게 되어졌다. 그러나 건축가, 조경가들이 실용성에 치중하면서 상징성, 기념비성, 공간과의 상관성, 미적인 문제까지 동시에 고민하고 있을 때 아직도 많은 예술가들은 기능보다는 내용, 상징성보다는 표현과 예술가 자신의 문제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제 예술에서 형식과 내용의 관계는 예술가 자신의 문제를 넘어 그 작품을 체험하고 감상하는 이용자의 문제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용자는 더 이상 바라보는 객체가 아니라 작품의 구조를 구축하는 주체로 등장하였고 체험으로 미적 상징을 공유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경험 확대와 지적 수준 향상으로 더욱 더 강하고 특성 있는 이미지 창조를 갈망하게 되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경조형물은 주거 환경 공간의 성격을 특징 짓는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상징의 특성상 미지의 것을 암시하는 것이 가능해야하며 삶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과 체험을 구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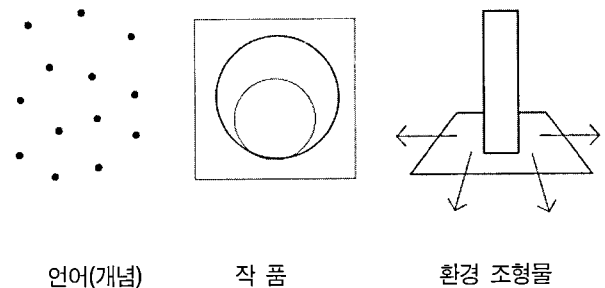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볼 때 도시 거주 공간 속에 나타나는 조형물은 크게 1. 도시의 관문이나 중요한 위치에서 도시성을 상징하는 조형물 2. 아파트단지 입구나 단지의 중요한 위치에 설치되어 지역성을 상징하는 조형물 3. 교량 및 건축물외부를 특성 있게 디자인하여 기능을 포함하면서 지역성을 강조하는

조형물 등이다. 이들은 모두 도시나 지역을 '性化', 즉 도시나 지역의 성격을 특화하는 것이다. 또한 인지도를 높여 미적 공간체험을 배가 시켜주는 동시에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William York Tindall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술이 기쁨, 정서, 충격 등을 환기 시킬 수 있는 사물을 재현하고 그 형태를 구조화하며 경험을 표현해 내는 의식적인 인간 활동이라고 한다면 잘 표현되어진 작품은 기쁨이나 정서적인 감정을 이용자로부터 곁집어내어 환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환경조형물은 사람의 감정까지 어루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환경조형물의 상징성 분석 및 영향

예술작품이 어떤 뚜렷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말하고자 하는 뜻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작품을 '상징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또한 개념이나 사상을 전달하기위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내거나 관람자들이 그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자신의 인식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의미를 유추해 내고자 사고를 쉬지 않을 때 우리는 역시 '상징적'이라고 말할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사고의 형식을 작품 속에 적용할 수 있다면 인간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주거 환경은 지금 보다 훨씬 창조적이며 치유적인 면을 지니게 될 것이다. '상징'은 그 표현에 따라 가장 근본이 되는 글과 예술작품, 그리고 상징조형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글은 추상적 개념이며 예술작품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환경조형물은 사실 존재하면서 공간에 파장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 그 파장은 다른 말로 나타내면 기능성이다. [도 1]

[도 1 상징의 분류]



이처럼 기능적으로 사실 존재하는 환경조형물은 예술의 목적성과 전달성과의 관계 하에서 '상징'을 다루는 방식이 다음과 같다.

1. □ 는 땅의 상징이다, ○ 는 하늘의 상징이라는 식의

상징(내재적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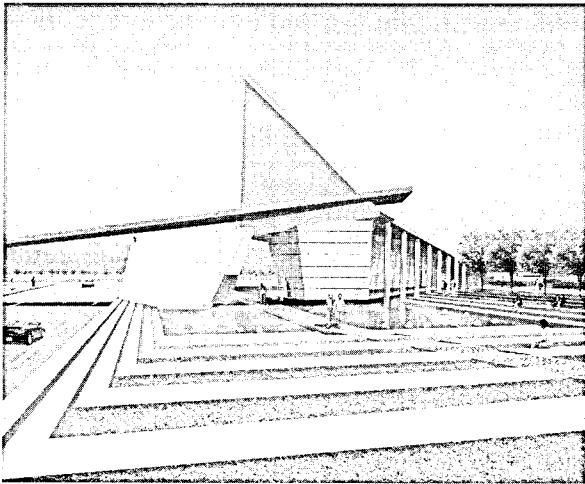
2. 영남대 교문은 차전놀이를 형상화하여 단합을 상징하고 있다.[그림 1] 이처럼 사물의 직접적인 표현이 불가능 한 경우에 다른 사물을 대응하는 경우의 상징.

3. 비둘기나 아이들이 놀고 있는 구상조각을 설치하여 평화를 의미하는 식의 암시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상징

4. 미적 가치 자체가 어떤 정신적 내용을 의미하는 경우의 상징 (미적 상징)

도시 거주 환경공간에 나타나는 환경 조형물은 결국은 이용자가 직접 대상을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징체계를 통하여 이해하게 됨으로 상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영남대학교 교문 상징 조형물



4. 환경조형물의 상징적 특성이 갖는 의의

우리는 형태적 요소에서 미를 찾고 상징성 요소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하여 형식과 상징은 환경 조형물에서 작품의 미적 정수를 발견하게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상징성이 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 주는 것만은 아니다. 상징체계를 구조화하는 단계에서 가끔 작가들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 오류는 주로 상징이 작용하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1. 작가가 여러 방식의 상징 중에 이용자를 감안하여 상징적 방법으로 상징을 환원해 내었을 때, 이용자들이 어떻게 작가가 의미하는 상징을 바로 알아내느냐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입구에 넓은 땅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단지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의미로 □ 모양의 작품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그 상징성을 파악해 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때는 상징이 상징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내재된 상징을 이용자들이 파악하고 난 뒤에 그 상징에 동의를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이다. □ 모양이 땅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주민들이 이 상징의 발상이 동양사상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가 땅이라는 상징에 동의하기가 어렵

다는 것이다. 여기서 과연 환경조형물이 상징하는 ‘성’을 반드시 이용자들이 이해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예술적 인식, 예술적 체험 등을 이용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방법으로 유도하여 나아가 할 것인가 의문이 제기되어진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아마도 환경 조형물이 어떤 기능을 내포하면서 존재 하는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도시나 지역의 특성을 상징화 한 상징조형물이라고 한다면 작품이 의미하는 상징 자체가 이미 그 도시나 지역 자체가 상징화 되어 있거나 아니면 도시나 지역이 안고 있는 가장 강한 특성이 상징화 되어 있을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5. 결론

이로서 간단하게 주거 환경 공간에서 환경 조형물이 의미하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 생각하여보았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이며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를 진행하여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 생활공간 속에 점점 범람하여 가는 환경 조형물의 상징을 정확하게 그 본질과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날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조형물과 공간과의 균형 및 정체성 등을 회복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상징이 의미하는 상징성이라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될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작가들은 환경 조형물을 도시 문화, 사회문화기구로서 인식하여 작품성보다 인간의 상징 능력에 기초하여 의미를 찾게 하고 인간의 능동성, 의미의 중요성, 의미를 공유하는 관계적 작품을 창조 해 낼 수 있도록 하여야 겠다.

참고문헌

- 이상권, 현대미학에서의 상징의 개념, 홍익대학교 대학원 논문, 1981
- 정연홍역; A.N. 화이트헤드 저, 상징작용 그 의미와 효과, 서광사, 1989
- 장석만역; D.M.Rasmussen 저, 상징과 해석, 서광사, 1991